

# 종합·해설

### ■ 오늘 광주·전남 대의원 투표 민주 지도부 경선 분수령

## 표심 오리무중... '최대승부처' 될 듯

### 정치적 텃밭·노퍽 진원지 상징성 커

### 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에도 영향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지역 순회 경선이 처음부터 이변을 연출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22일 실시되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전체 관세를 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이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심장'인 데다 노퍽(노무현 바람)의 진원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경선 결과는 대의원 투표의 흐름은 물론 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1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밤 늦게 집계되는 부산지역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광주·전남 순회 경선 결과는 전체적인 지도부 경선 관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부산 경선은 친노 그룹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해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더라도 정치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친노와 비노에서 자유로운 광주·전남지역의 순회 경선 결과가 전체적인 지도부 경선 관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텃밭이자 노퍽(노무현 바람)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전체적인 승기를 잡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대의원의 표심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이 광주·전남을 대표해 출마한 강기정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

는 주문을 내놓고 있지만 나머지 한 표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이 정치 의식이 높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지역 대의원들이 친노(친 노무현) 성향이 강한 친노 그룹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에 이해찬 후보의 우세보다는 오히려 중립 성향인 김한길 후보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추다르크'로 불리우는 추미애 후보에 대한 향수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대의원 A씨는 "광주는 늘 정치적 격변기마다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이번 경선도 대선때문에 묻혀가기 보다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경선 관세는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가 접점을 벌이는 가운데 홈 그라운드

지원을 얻은 강기정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분전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산 순회 경선 결과는 이날 밤 10시 이후에 집계될 예정인 가운데 친노 그룹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이해찬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김한길 후보와 우상호 후보, 영남 출신의 추미애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변이 다시 한 번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산 순회 경선 일정이 밤 늦게 잡힌 것과 관련, 투표율을 높여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시간은 지역별 장소 대관 조건 때문"이라며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은 22일 오후 1시 화순 하남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박근혜 체제' 최종 완성

### 사무총장에 親朴 서병수...대변인은 親李 김영우

새누리당 차기 사무총장에 친박계 핵심인 4선의 서병수(사진) 의원이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연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재정과 조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게 서 의원을 의결했다고 이철우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사무총장에 친박계를 임명하면서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의 '빅3'가 친박계로 채워지게 됐다. 서 의원은 친박계로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해 적이 없고 일처리에서도 무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서 의원의 사무총장에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들에게 "주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논의를 했다"며



"4선이자 최고위원을 지낸 영남권 큰 정치인인 서병수 의원이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해 대선준비를 착실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고서 의원을 사무총장에 추천했다. 한 최고위원이 "심재철 최고위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심 최고위원은 "대표께 전권을 드렸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서 의원의 사무총장에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사무총장에는 3선의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비중 있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이후 '파워게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대변인인 친이계 재선의 김영우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단은 정문헌·권성동·나성린·조해선 의원으로 각각 인선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원내대변인에 재선의 홍일표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김을동·서용교·홍지만·이장우·박대출·김기선·이현재·신인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영우 신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국민에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가슴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서도 노무현 서거 3주기 헌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에서 마련된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추도식은 22일 오전 11시에 금남로 공원에서 거행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박지원 "민주대표 경선 흥행 대박"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어제 울산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표 경선이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고 자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누가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누가 당일 투표 결과를 공개해서 이익을 보느냐에 비관이 있었지만, 모든 언론이 민주당의 흥미진진한 결과를 대서특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고 역동성과 희망이 있는 정당"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는 정당 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부산 전대에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 특히 도덕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대를 할 것"이라고 다



다. 김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0%의 대의원은 주로 조직표"라며 "이 조직표만 득표수를 공개하며 깎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초반 밝힌 시도당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를 즉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노 진영 완벽 부활

### 문재인·문성근·김두관 재결집... 야권 전면 포진

친노(親盧·친노무현) 진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3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다.

2007년 대선 패배 직후 스스로 '폐족(廢族)'이라고 부를 정도로 몰락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야권의 최대 세력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친노 부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전 국적으로 노퍽(盧風·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친노 진영이 팔뚝 뚫리기 시작했다.

친노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재기의 기쁨을 마셨다.

노 전 대통령의 '양날개'였던 안희

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두관 경남지사 등 30여명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배출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지난해 야권대통합이 이뤄지면서 친노는 민주통합당의 깃발 아래 재결집했다. 1·15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전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성근 전 최고위원 등이 결속했고, 그 결과 한 전 대표와 문 최고위원이 경선 1, 2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활의 결정판이었다. 18대 국회에서 10명도 되지 않던 친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50여명으로 늘어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 전 대통령 "담배 하나 주게"

### 노무현재단, '마지막 육성' 공개

노무현재단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저체 체 작한 팟캐스트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통해 마지막 육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육성은 서거 나온 전인 5월 19일 참모들과 함께한 '진보주의 연구모임' 회의 내용과 검찰수가 본격화된 4월 22일 회의 내용이

다. 노 전 대통령은 5월 19일 회의에서 "연구가 잘 돼야 자네들과 만나면서 그나마 작은 끈이라도 이어가지 안 그러면 이 적막강산에 쓸쓸해서 무슨 남아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 주게, 한개 주게"라는 말을 남겼다.

4월22일 회의에서는 "각을 세우고 싸우고 지지고 뉘고 하는 곳에서 해방되는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새

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봉하)를 떠나기 전의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야. 산맥이 없어, 봉화산은 큰 산맥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딱 홀로 서 있는 돌출된 산"이라고도 했다.

그는 "시민이 중심이다. 시민의 역할은 더 좋은 놈(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고, 덜 나쁜 놈(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이나 신뢰다. 내가 있지만, 그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한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영사건내편)

#### 매매 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포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가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 최기철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북도 임원외 부자기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쟁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주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실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 북구 삼각동 (사우나 현 상업중) 면적 ■ 대지 약900평, 건물 : 2500평 지역 ■ 칠산지구 월계동(무인텔 금매매) 면적 ■ 대지 : 338평, 건물 : 440평 객실 : 22실 지역 ■ 광천티미널 부근 모일하우스(사동기) 면적 ■ 대지 : 약1000평, 건물 : 2803평 지역 ■ 봉성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 수완지구 롯데마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 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 오피스텔 매매

▶ 총 합계 :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원

▶ 지하 핸드폰전시장 1

▶ 사무실 1, 10평 27.11평 67제, 13평 4

▶ 토지면적 : 509.09㎡(154P)

▶ 건축면적 : 1375.21㎡(416P)

▶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자의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011-684-3886

#### 상가/원룸 매매

▶ 총 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779만원

▶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100P)

▶ 건축면적 : 737.19㎡(223P)

▶ 매매가 7억4천만원 (용자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9천 원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실전투자법 / 회비 330만원
- 유차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 특이점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주택 / 근린시설

- ▶ 영광동 영광동 2중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물90평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1천만
- ▶ 남구 월산동 상업지역 근린상가 대지330평 건물400평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1천만
- ▶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 근린상가 대지260평 건물95평 김정기4억8천만 최저가2억5천만

#### 단독주택

- ▶ 서구 봉성동 2중주거 2중주택 대지70평 건물81평 김정기2억4천만 최저가1억9천만
- ▶ 서구 화정동 2중주택 대지70평 건물56평 김정기1억8천만 최저가1억4천만

#### 전원주택 부지 / 창고 부지

- ▶ 봉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김정기1억3천만 최저가1억6천만
- ▶ 관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토지매매

- ▶ 화순군 도곡면 도곡면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 무안읍 신화리 농림지역 담 3,000평 매매1억5천만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